

한국변호단 인사

“소록도·대만보상청구사건 해결을 기념하여 한센병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향한 한일 심포지엄” 행사를 하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일본 한센병 소송변호단은 일본 나예방법 위헌확인 및 국가배상소송을 통하여 89년에 걸쳐 잘못 시행된 일본 한센병정책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쿠마모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변호단 변호사님들께서 2003년 여름 한국 소록도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소록도갱생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에 걸친 한일변호단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일제 식민지 지배시대에 피해를 입은 소록도갱생원 피해자 590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800만엔(한화 약 8,000만원~1억원 상당)씩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본변호단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강제격리 피해를 입은 소록도갱생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만 낙생원 피해자들까지도 보상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일 변호단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 후 한국정부가 한센병력자들에게 저지른 강제단종낙태피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단종피해자 265명, 낙태피해자 272명 합계 537명이 대법원까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일·대만 3국 변호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활동을 통하여 인류 보편적가치인 한센인들의 기본적인권을 회복시키고 개선함으로써 국제연대를 통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 한센인권변호단은 더 나아가 13년 여의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맺은 학계, 언론계, NGO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함께하는 빛’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한센병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을 위한 인권회복 및 개선, 증진활동을 계속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강제단종낙태소송을 담당했던 한센인권변호단 변호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기(고문), 장철우(부단장), 조영선(총괄간사), 최용근, 양정숙, 이영기, 서중희, 김준우 변호사 입니다.

앞으로도 일본변호단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하여 주신 도쿠다, 쿠니무네 선생을 비롯한 일본변호단 변호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2.

한국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박영립